

사우디 공항 “코리안? 그럼 외교관 통로 이용하시죠”

걸프 3국에 부는 코리아 열풍

지난달 5일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홍해 연안 도시 안부에 있는 프린스 압둘 모신 빈 압둘아지즈 공항. 취재진을 본 출입국 관리관은 “한국인이면 먼저 입국 심사를 받으라”며 외교관 통로로 인도해줬다. 외국인에게 비자를 거의 내주지 않고, 입국 심사 때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유명한 사우디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대접은 ‘한국의 기술력’ 덕분이다. 안부·제다 등 사우디 서부지역에는 대규모 석유발전 플랜트를 짓고 있는 한화건설을 비롯해 두산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등이 진출해 있다. 1980년대 ‘중동붐’을 경험했던 한화건설 김진화(안부 마라픽 현장소장) 상무는 “당시엔 사우디 감독관이 한국인을 때리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현지인이 한국인을 ‘부지런하고 기술력을 갖춘 엘리트 민족’으로 존경한다”고 말했다. 걸프 지역에서 한국은 선망의 나라다. ‘석



지난달 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서부의 안부 ‘마라픽 발전·담수 플랜트’ 현장에서 한화건설 엔지니어 김규남씨(오른쪽)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장비 사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방글라데시·네팔·스리랑카 등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결같이 “한국인의 기술력과 근면성에 놀랐다”고 말했다.

석유 고갈에 대비하는 중동국 산업화 성공한 한국이 롤모델

“부지런하고 기술 뛰어난 민족 마음껏 돈 벌게 해주겠다”

유 이후의 시대(post-petroleum era)를 대비하는 걸프 국가들에 자원빈국 한국의 산업화 성공 경험은 훌륭한 롤모델이기 때문이다. 한국 건설업체가 짓는 건물·시설뿐 아니라 한국 전자업체가 생산하는 휴대전화·컴퓨터·TV 등 역시 명품으로 통한다. 두바이의 랜드마크인 부르즈 알아랍, 모베크·메아트 등 걸프 지역에 진출한 특급호텔 객실에서도 LG전자의 LCD TV를 쉽게 볼 수 있다. 나주영 LG전자 차장은 “지난해 LCD TV 판매량이 2010년 대비 100%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두바이물이나 카타르시티센터 같은 대형 쇼핑몰에는 진열대 앞쪽에 삼성의 휴대전화가 전시돼 있다.

한국인의 ‘근면성’에 대한 경외감 역시 이들의 관심을 끄는 요소다. 주 카타르 대사관 박현아 서기관은 “아랍 관료들은 한국의 산

업화 과정에 관심을 갖고 인재 양성 비결을 자주 묻는다”고 말했다. 중동 일터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카타르 건설업체 그룹3의 엔지니어 루반 쿠마라싱암(33·스리랑카)은 “한국 기업의 높은 기술력과 장인정신 덕분에 중동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며 “한국인을 받아야 나의 조국도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걸프국가들은 앞다투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무함마드 빈 살레 알사다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오일쇼크가 터지면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에너지를 지원하겠다”며 “카타르는 한국인들이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우디 매디나지식도시의 칼리드 타시 부사장은 “LG CNS 등 한국 업체들과 협력

해 스마트 도시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걸프마 단계 한류, 가능성 ‘무진’**=중동에서 한류는 태동 단계다. 신정(神政)국가로서 문화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사우디를 포함해 중동 지역의 보수적인 문화 탓이다. 하지만 아부다비·두바이를 중심으로 한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두바이 통치자의 이름을 딴 명문대인 자예드대에는 ‘한류 동아리’가 생겼다. 2010년 초 4명으로 시작한 동아리는 2년 만에 회원 수 150명을 돌파했다. 동아리의 회장인 팀 베이커(20·국제학 3년)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틈틈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며 “한국에 가서 한류 가수들의 공연을 본 적도 있다”고 말했다.

안부·두바이·도하=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해스마트 도시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신용기 제다 총영사의 ‘중동 레슨’ “신용장 개설도 안 하고 왕족 연출부터 찾는 한국인이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에서 사업한다면 실력 없이 인맥만 찾으려 하지 마세요.”

실력·전략 없으면 왕족 연출도 안 통해

신용기 제다 총영사의 ‘중동 레슨’

“신용장 개설도 안 하고 왕족 연출부터 찾는 한국인이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에서 사업한다면 실력 없이 인맥만 찾으려 하지 마세요.”

신용기(사진) 주 제다 총영사는 쓴소리부터 꺼냈다. 그는 “현지 왕족들이 사업 실적도 없는 한국 기업에 연출로 사업 기회를 줄 가능성은 제로(0)”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사업 실적과 전략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에서 한국의 건설, 정보기술(IT), 자동차 등은 ‘메이드 인 코리아’ 열풍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산업 한류’로 승화시키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관료제가 강하고, 문서화된 행정절차를 중시하는 현지 분위기를 아는 건 기본 중 기본이다. 몇 년 전 사우디에서는 현지에 갓 진출한 한국 기업이 ‘선(先)공사 후(後)보고’를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도로에 케이블을 매설했다. 하지만 관계 당국으로부터 “공문 근거 없이 마음대로 한 공사인 만큼 원



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공사비에 복구비까지 쓰다 보니 해놓은 것이 투자금 전액이 날아갔다.

현지인에게 ‘지속적인 파트너’라는 믿음을 주는 것도 장기적인 과제다. 압둘아지즈 나세르 알소라야이 알소라야이그룹 회장은 “미국이나 중국 기업은 적극적인 현지 투자를 통해 ‘기여하는 나라’의 이미지를 만드는 반면, 한국은 적극성이 부족하다”며 “중동 국가들에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한국은 더 큰 부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동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 역시 걸프지역에서 한국 붐을 일으키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두바이 제벨 알리 플랜트에서 만난 두산중공업 백낙영 상무는 “일을 좀 시킬 만한 30~40대 과장이나 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중동 붐’ 시절에 일했던 60~70대 엔지니어까지 데려다 쓰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제다=이현택 기자

100% 임대완료된 오피스 분양

※ 5,000만원대 소액투자 가능
※ 연수익율 8%대

건물개요

- 지하 3층 지상 19층 대형 오피스 빌딩
- 장기간의 계약기간 (3년 ~ 5년)
- 국내,외 글로벌 기업 입주 (모토로라 본사등 다수의 우량기업 입주)
- 계약과 동시에 임대계약 승계

분양문의 : 02-2155-16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15번지 하이브랜드 오피스빌딩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2-35호

분묘개장 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에 의하여 공고자 임의로 개장처리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182-309번지 (지번 분할전 182-217)
 - 기 수 : 2기
2. 개장사유 : 「석등 ~ 소사간 도로개설사업」에 편입
3.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2012. 4. 6. ~ 7. 6.)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의 개장
5. 안치장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덕덕동 750 천자원
6. 안치기간 : 유골안치 후 10년
7. 신고 처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행정과 ☎ 055) 320-5181
8. 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제출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내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같음함.

2012년 4월 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We Start **우리의 위대한 미래가 되어 주세요**

02.318.5004 westart.or.kr

第12期 決算公告

재무상태표

계정	금액	과목	금액
1. 총 자산	543,989,319	1. 총 부채	26,714,435
11. 유 자산	543,989,319	1. 예 수 과	17,941,365
111. 현금및현금성자산	528,712,690	2. 미 지 과 비 용	8,833,040
2. 무 자산	0	II. 비 용 총 부 채	3,889,287
21. 비 유 자산	0	1. 이익잉여금	436,492,530
3. 미 수 과 과	2,355,000	2. 이익잉여금운용잔액	△432,603,243
4. 선 급 비 용	10,041,225	부 채 총 계	30,403,232
5. 선 급 부 가 채	2,929,944	1. 재 분 골	2,935,000,000
		1. 보 통 부 지 분 골	2,935,000,000
II. 비 용 총 자 산	1,520,640,000	II. 결 산	△100,769,937
111. 유 자 지 산	1,520,640,000	1. 법 정 적 잉 과	1,037,500,000
1. 정 기 공 용 실 용	92,013,130	2. 미 처 의 결 과	△1,038,269,937
2. 특별회계등유지자산	1,521,627,676		
자 산 총 계	2,094,639,925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094,639,925

2012년 04월 06일
(주) SAMS
대표이사 김원기

광고 안내

02)754-5566

금융

중소기업 신용 대출

구매, 운영, 급여
교환자금, 어음할인

대영투자대부 031)711-8781

대출한도 3천만원이상 연10~30%
금속동171 성남1107호 ※달러환영

70평생애
대통령명인장
축제로이끄는
마음의
로드맵

인생을
축제로이끄는
마음의
로드맵

2261-1001
2263-1001
2264-1001
지정·외판권 절대없음

영어 1:1 원어민 영어뉴스토론

일반 영어회화 영어신문 토론 수업
writing 첨삭지도 평가시험 과정운영

무료레벨 테스트 문의
www.jdphone.com 1544-9407